

자생지 참취의 재생 및 엽록소 함량

최수용*, 박병재, 장광진¹⁾, 이기철²⁾, 박철호

강원대학교 식물응용과학부, ¹⁾한국농업전문학교, ²⁾춘천교육대학교

자생지 재배를 통한 참취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춘천 근교의 5개 지역에서 자생지 참취의 재생력과 엽록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2차 수확시 판별한 1차 수확 후의 생존율은 춘천과 대룡산 지역이 93-100%로 비교적 높았으며 연엽산B와 북방지역이 33-50%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2차 수확시 조사한 1차 수확후 2차 수확시까지의 건물증가율은 북방지역이 120%로 가장 높았으며 대룡산과 춘천지역이 108% 였다. 연엽산B 지역은 33%로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1, 2차 수확후 참취의 재생력을 초장, 엽수, 엽면적, 건물중 등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1996년 11월 초에 예취한 후 1997년에 생장한 것을 6월 하순에 1차 수확시 초장은 춘천지역을 제외하고 4개 지역 모두 30cm내외의 신장을 보였다. 1차 수확된 후 10월 초순에 2차 수확하였을 때의 초장은 북방지역의 참취가 초장이 평균 11.2cm로 가장 길었으며 나머지 4개 지역은 모두 6-8cm의 초장을 나타냈다. 1차 수확시 초장은 춘천지역의 참취가 5매로 가장 많았으며 연엽산B 지역의 참취가 2매로 가장 적었다. 2차 수확시는 지역간에는 같은 경향이었으나 평균엽수는 1-2.5 범위였다.

엽면적은 1차 수확시 춘천지역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 210cm² 내외를 나타냈으며 2차 수확시에는 북방지역 참취가 30cm²로 가장 높았다. 건물중은 1차 수확시에 연엽산A 지역의 참취가 1.4g으로 가장 높았고 2차 수확시에는 북방지역의 참취가 0.12g으로 가장 높았다.

생육지별 참취의 엽록소 함량은 북방지역의 참취가 가장 높았고 포장재배 참취가 가장 낮았다. 특히 북방지역 참취와 포장재배 참취는 엽록소 b의 함량이 현저히 높았고 연엽산과 대룡산 지역의 참취는 엽록소 a의 함량이 비교적 높았다. 연엽산에서 고도별 참취의 엽록소 함량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저고도의 북동지역의 참취가 비교적 엽록소 함량이 높았다.